

##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김세중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장

### 0. 들어가기

최근 들어 그간의 표준어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비판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력하고 경직된 표준어 정책이 겨레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방언을 위축시키고 소멸을 가속화했다는 비판도 있고, 국민 각계 각층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때맞추어 최근에는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간의 표준어 정책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함이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에서는 현재의 표준어가 있기까지 표준어의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고, 2에서는 현행 표준어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3에서는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 I. 표준어의 역사

### 1. 조선어사전(1920)

조선총독부는 1912년 4월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 1911년부터 ‘조선어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1920년 3월에 ‘조선어사전’을 간행하였는데 약 6만 어휘를 수록하였다.

### 2.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조선어학회는 1929년 10월 108명의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사전 편찬에 나섰는데 정서법, 표준말 등의 문제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1930년대에 두 가지 일을 먼저 마무리지었다. 즉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 공포하였고 1936년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펴냈다. 그리고 1947년 ‘조선말 큰 사전’ 1권을 간행하였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머리말에 나오는 표준말 사정의 경과에 따르면 “조선 사람의 공통어로 될 표준말의 확립이 현시에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 조선어학회는 따로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라고 했다. 이때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는 원칙에 의지하였지만 가장 보편성이 있는 시골 말도 적당히 참작할 필요로 전 위원 73인 가운데 37인은 경기 출생(그중 경성 출생이 26인), 나머지 36인은 각도별로 하였다. 회의시에 한 개의 낱말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경기 출생의 위원에게만 결정권이 있고, 혹시 지방 출생의 위원 중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재심리에 붙여 그 말의 분포된 지방을 조사하여 전수표결로 작정하였다.

또 각 전문어에 관한 것은 각기 전문가에게 문의하며 직업상 전용어(專用語)는 그 현장에 가서 실지 조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정이 거의 끝났을 때에는 더욱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정안을 인쇄하여 각 교육기관,

언론기관, 문필가 및 명사 500여처에 보내어 비평을 구하였다. 따라서 이 표준말의 사정은 단순히 소수 위원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조선적으로 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하였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로써 으뜸을 삼되, 가장 널리 쓰이고 어법에 맞는 시골 말도 적당히 참작하여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 표준어 6,231개, 약어 134개, 비표준어 3,82개를 발표하였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나타난 표준어 사정의 의의는 변종을 줄이고 대표형을 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워낙 서울말 안에서조차 어형이 안정되지 않고 변종이 많았다. 그래서 변종을 줄이고 어느 하나를 대표형으로 하여 공통어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형을 표준어로 삼아 공통어를 정하였다. 그 결과 많은 변종들이 비표준어가 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어) 먼저 먼점 먼처 먼침 먼침 (비표준어)

**갈구리** (표준어) 갈고리 갈쿠리 갈코리 갈구지 갈쿠지 갈고랑이 갈구랑이 갈코장이 갈쿠장이 (비표준어)

**그(이/저)만큼** (표준어) 그(이/저)만큼 그(이/저)마큼 그(이/저)마콍 그(이/저)만침 그(이/저)만치 그(이/저)마침 그(이/저)마치 (비표준어)

### 3. ‘큰사전’(1947, 1957)

‘큰사전’은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범’을 표준어로 하고 ‘호랑이’를 비표준어로 하였지만, ‘큰사전’에서는 ‘범’과 ‘호랑이’를 모두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큰사전’도 ‘조선어 표준말 모음’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다양한 변종을 비표준어로 처리하여 어휘의 통일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였다. ‘큰사전’은 우리말의 표준을 세움으로써 공통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II. 현행 표준어의 특징과 문제점

표준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표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준어** :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언어를 정의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어휘와 문법일 것이다. 표준어를 현대 서울말이라고 할 때에도 현대 서울말을 정의하려면 현대 서울말의 어휘와 문법이 필요하다. 어휘와 문법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울말의 문장 역시 현대 서울말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표준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 할 ‘표준어 사정 원칙’(1988)은 표준어의 극히 부분적인 일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 1. 표준어 사정 원칙(1988)

표준어 사정 원칙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항~제2항)**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항~제18항)**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9항~제26항)**

이렇게 3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은 제1장과 나머지 제2, 제3장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장은 표준어의 개념 정의이고 제2장, 제3장은 개별적인 어휘 사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어의 정의인 제1장, 그 중에서도

제1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 서울말’이다. 그 앞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이라는 수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두루 쓰는’이라는 표현도 매우 모호하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이 쓰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뜻이라면 당연한 규정일 뿐이다.

‘현대 서울말’에서 ‘현대’는 중요하다. 오늘날 쓰이지 않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80, 90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쓰는 고행(古形)의 말도 현대 서울말이 될 수 있는지,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말도 현대 서울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현대’라는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로 정함’이라는 표현은 표준어가 인위적, 작위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표준어가 본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하는 것임을 보인다. 더욱이 ‘~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현대 서울말이면서 표준어가 아닌 말이 있을 수 있고, 현대 서울말이 아니면서 표준어인 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인다. 전자에는 ‘삼춘, 사둔, 둔’ 같은 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에는 ‘강냉이’, ‘멍게’ 같은 말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 제2장, 제3장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표준어 어휘중의 극히 일부이다**

제3항부터 제26항까지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갈라 놓았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표준어는 표준어 어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제시되지 않은 어휘에 대해서는 표준어인지 비표준어인지 알 수 없다.

물론 변종이 없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에 대해서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 변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표준 어형을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말들이면서 제3항부터 제26항 사이에 들어 있지 않은 예들이 꽤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들은 현실적으로 다 쓰이고 있는 말들이다. (가)와 (나)가 다 표준어인지 어느 한쪽만 표준어인지 가려져야 할 말들이다.

(가)	(나)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팬스레	팬시리
수근거리다	수근거리다
숙맥	쑥맥
아이코	아이쿠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으스대다	으시대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 나타나 있지 않은 위 예들은 어느 하나로, 즉 왼쪽 어형이 표준어로 결정되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다. 오른쪽 어형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비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무엇을 근거로 왼쪽 것을 표준어, 오른쪽 것을 비표준어로 처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기존 사전들의 처리를 그대로 수용하였겠지만 언어 현실과의 괴리는 있어 보인다. (나)의 어형들이 언어 현실에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등재되어 있는 말도 꽤 있다.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어튼/여하튼

일일이/하나하나  
 장가가다/장가들다  
 좀처럼/좀체  
 중신/중매  
 차차/차츰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에 들어 있는 위 예들은 복수표준어로 제시된 것들인데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나 ‘큰사전’에서 비표준어로 처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별개의 단어로서 당연히 모두 표준어이다.

## (2) 억양과 문법이 빠져 있다

표준어를 표준어 어휘와 표준어 문법이라고 할 때에 표준어 어휘의 일부 어휘에 대한 분절음 형태만을 밝혀 주었을 뿐이다. 단어의 초분절적 특징, 문장의 억양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어휘의 연결에 따른 문장의 문법성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준어를 단어 차원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표준어 어휘로 된 글을 낭독할 때에도 읽는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그 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자유로운 대화에서는 더 뚜렷해짐은 물론이다. 표준어나 아니냐는 어휘의 분절적 형태보다는 억양에서 더 분명해진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준어나 아니냐는 단어뿐 아니라 문장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에서는 단어 차원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갈랐을 뿐 문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문장이 표준어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문법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인 상태이다. 예를 들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와 같은 인사말이 바른 말인지 아닌지, 또 ‘건강하십시오’와 같은 말이 문법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표준어 사정 원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3)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말이 많다**

(가)	(나)
굴젓	구젓
말결	말곶
물수란	물수랄
밀뜨리다	미뜨리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5항은 (가)를 표준어, (나)를 비표준어로 규정하였다. (가)가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예이고 (나)는 비어원적인 형태의 예이다. 그러나 비표준어로 규정된 (나)는 물론이고 표준어로 규정된 (가)조차 오늘날의 일상 언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조남호(2002)의 조사에 위 여덟 개의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사어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지 문제가 간단치 않으나, 사어에 가까운 말들이 표준어 규정에 너무나 많다.

**(4) 언어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가)	(나)
수놈	숫놈 (제7항)
수소	숫소 (제7항)
바람	바램 (제11항)
빌리다	빌다 (제6항)
-기에	-길래

(가)가 표준어, (나)가 비표준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행해진 몇몇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표준어로 규정된 것이 현실 언어에서 압도적으



로 많이 쓰이고 있다. 제1장 제1항의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예들이다. 예를 들어, 김선철(2003)에 따르면 ‘수눔[수눔]’이 5명, ‘숫눔[숫눔]’이 345명이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언어 사용의 실태 조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 1988년 이전과 그 이후 사이에 언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만일 언어 변화가 일어났다면 변화에 맞추어 표준어를 다시 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언제 어떻게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한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세대차, 성차, 직업차를 보일 것이고 개인차마저 보일 것이다. 그래서 표준어를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 사용 실태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태에 대한 파악 없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 (5) 규정의 본질적 문제

표준어 사정 원칙 제3항부터 제26항까지는 대체로 ‘다음 단어들은 어떠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규정이 특정 단어에만 해당할 뿐이지 새로운 단어에 적용될 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규칙이 아니라 개별 단어에 대한 판정일 뿐이다. 따라서 사정 결과가 사전 표제어 정보에 반영됨으로써 규정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더 이상 규정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다. ‘-장이’는 기술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쟁이’로 한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 제9항 붙임 2가 그렇다.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이 생길 경우 그 때에 ‘-장이’를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표준어 사정 원칙에는 이런 조항이 매우 드물다.

## 2. 표준 발음법(1988)

표준 발음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규정이다. 자음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겠으나 모음 21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우선 ‘에’와 ‘애’를 구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에’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에’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니 ‘외’를 ‘왜’, ‘웨’와 구별하지도 못한다. 모음의 장단도 마찬가지다. 모음의 장단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사람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흐릿하게 구별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형편이다.

‘꽃’, ‘밭’과 같은 단어의 발음도 마찬가지이다. 표준 발음법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왔을 때에 ‘ㄷ’으로 발음하라고 되어 있지만 ‘ㅅ’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답’, ‘통답’과 같은 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에 ‘ㄹ’과 ‘ㄱ’을 다 발음하게 되어 있지만 ‘ㄱ’만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동사 ‘뺏다’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에 [뺏따], [뺏찌]와 같이 발음하게 되어 있으나 [뺏꼬], [뺏찌]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이 조사된 바가 있다. ‘끓기다’와 같은 단어는 발음법상으로는 [끈기다]로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으로 되어 있지만 [끈기다]로 발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제5장 소리의 동화 중에서는 ‘ㄴ’과 ‘ㄹ’이 왔을 때에 ‘ㄹㄹ’이 되는지 ‘ㄴㄴ’이 되는지 개별적인 단어의 발음 문제로 미루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제6장의 된소리되기도 마찬가지이다. [효과]인지 [효파]인지는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래어는 아예 발음에 대해 언급이 없다. ‘서비스’를 [서비스], [서비쓰], [씨비쓰], [씨비쓰] 중 어느 것으로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 3. 표준어 모음(1990)

1990년에 약 1,400개 정도의 고유어 어휘와 그 관련 단어를 모은 표준

어 모음이 발표되었다. 새한글 사전과 국어 대사전이 달리 처리한 표제어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이다. 표준어 모음(1990) 역시 위에서 살펴본 표준어 사정 원칙(1988)이 안고 있는 문제와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전들 사이에 달리 처리되지 않은 것들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말들이 대단히 많이 올라 있다는 점, 언어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처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 4. 표준국어대사전(1999)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1988)을 철저히 적용하여 표제어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표준어 규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다. 즉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표준어 규정에 오른 말이면 표제어로 올랐고,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어로 정한 말은 표준어로 처리하고, 비표준어로 정한 말은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

#### 5. 표준어의 개념

표준어는 원론적인 정의와 개별 단어의 사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준어를 현대 서울말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에서 통일된 일정한 말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인들, 특히 아나운서가 쓰는 말씨는 어느 방송사의 아나운서든지 상관없이 서울말의 억양과 어휘를 쓴다. 최근 표준어가 서울말임을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표준어가 서울말의 억양과 어휘라는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 합의가 워낙 굳을 뿐 아니라 달리 대안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어 규정(1988)의 제3항부터 제26항까지의 규정이나 표준어 모음(1990)의 어휘 모음은 개별 단어의 사정에 속한다. 이들 개별 단어의 사정 결과 중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적지 않다.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단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어에 가깝거나, 두루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로

정해진 것들이 적지 않다.

원론적인 정의 면에서는 표준어가 굳건히 자리잡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단어의 사정 면에서는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그 결과 표준어가 사전에서만 통용될 뿐 오히려 비표준어가 언어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표준어는 비표준어를 전제로 한다. 표준어라는 개념 때문에 모든 말은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구분되어 왔다. 표준어는 규범적인 말이고 비표준어는 규범에 어긋난 말이다. 표준어는 규범과 동의어인 셈이다. 그런데 잘못 정해진 표준어는 규범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랑이 뭐길래’라는 인기 있는 연속극이 있었지만 표준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뭐기에’가 표준어이고 ‘사랑이 뭐길래’는 비표준어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겠지만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뭐길래’를 버리고 ‘사랑이 뭐기에’로 바꾸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스라소니’가 표준어이고 ‘시라소니’는 비표준어로 되어 있지만 ‘시라소니’를 버릴 사람 역시 별로 없어 보인다.

### Ⅲ.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 1. 공통어는 있어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표준어에 대한 반성 움직임은 그간의 경직된 표준어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준어 사정 결과는 표준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았다. 그러나 표준어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표준어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다.

표준어가 없다면 우선 공문서, 법률, 교과서, 신문, 방송, 출판 등이 큰 혼란을 빚을 것이다.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표준어를 통해 이런 활동이

행해져 왔다. 표준어는 공기와 같이 잘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표준어의 정의에서 ‘서울말’을 아예 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말’을 명시하지 않고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정도로 바꾸더라도 결국 서울말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서울말’을 표준어의 정의에서 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서울말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당장 억양을 어떤 방언의 것으로 할 것인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어의 정의에서 ‘서울말’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도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말은 역사적으로 이미 몇 백 년 전부터 한국어의 중앙어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가장 많은 인구가 서울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서울말은 한국어의 표준어로 정착되고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표준어 사정의 방법이 달라져야

### (1)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표준어 사정을 대신해야

앞에서 표준어의 원론적인 개념은 타당하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개별적인 단어 사정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어 사정이 이루어진 것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표준어나 비표준어나가 자의적으로 결정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왜 비표준어인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비표준어로 결정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이쁘다’는 ‘예쁘다’의 비표준어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오른 이래 지금까지 비표준어로 처리되어 왔다. 의미차 또는 어감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별개의 단어이고 ‘이쁘다’가 비표준어가 되어야 할 까닭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고 있는 말이 비표준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말을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나누어 왔다. 그러다 보

니 비표준어와 표준어를 가르는 근거가 모호하게 되었다. 별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말을 표준어와 비표준어 중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였다. 표준어는 규범어, 비표준어는 비규범어와 동의로 보았다. 나아가 표준어는 맞는 말, 비표준어는 틀린 말로까지 보았다. 실제로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를 표준어의 잘못이라고 규정하였다. 일례를 들어 사전에서 ‘팬시리’를 찾아보면 ‘팬스레’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거의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팬시리’의 사용 예가 ‘팬스레’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견된다. 말뭉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잘못된 말, 틀린 말인 셈이다. 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 표준어라는 표준어의 정의와도 모순된다. 이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이분법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수가 사용하는 말과 소수가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 본다.

같은 뜻의 단어가 발음상의 차이 때문에 여러 변종이 쓰여서 극심한 혼란을 보였던 것은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가 ‘몬저, 먼점, 먼처, 먼침, 먼침’으로도 쓰이던 것이 1930년대인데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먼저’로 거의 통일되었다. 비록 ‘먼침’ 같은 말이 아직 극히 일부 쓰이고 있다 해도 그 말을 쓰는 사람조차도 ‘먼침’이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을 안다. 1930년대와 달리 지금은 표준어의 변종에 대해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워낙 다양한 말이 쓰였을 때야 어느 하나를 표준어로 삼을 필요가 있었지만 변종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지금은 관대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 사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표준어 사정이라 할 때의 표준어는 서울말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문제되는 개별 단어를 가리킨다. 사정은 명백히 가리는 것을 말한다.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표준어 사정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둘 이상의 변종이 존재하는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변종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서울말 화자들 사이에서도 ‘만들다’와 ‘맨

들다’, ‘맹글다’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어형이 어느 정도 세력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만들다’, ‘맨들다’, ‘맹글다’ 순으로 쓰일 거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만들다’, ‘맨들다’, ‘맹글다’ 순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날 경우, 표준어 사전에 ‘만들다’만 올릴 것인지 ‘맨들다’까지 올릴 것인지 심지어 ‘맹글다’까지 올릴 것인지는 사전 편찬의 목적에 따라 사전 편찬자가 정하면 될 것이다.

말은 언중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나가고 어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어 나간다. 몇몇 심의위원이 사정한 결과에 따라 언중이 언어 생활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대신 대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결과를 사전 편찬자나 교과서 편찬자가 이용하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대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저기서 구축해 놓은 말뭉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에 오른 문서를 검색해서 실태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조사 방법이 대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2) 표준어 사정 원칙은 폐기되어야

1988년에 고시된 표준어 규정은 사전 표제어 결정을 위해 필요했고 사전 편찬에 사용됨으로써 그 역할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사전과 중복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2항부터 제26항 중에서 언어 현실과 달라서 개별적으로 재사정해야 할 것들은 재사정해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까탈스럽다’가 ‘까다롭다’의 비표준어로 처리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뭉치에서 ‘까탈스럽다’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제2항부터 제26항 중에 들지 않은 어휘들에 대해서도 재사정할 것은

재사정해야 할 것이다. ‘어수룩하다’만 표준어이고 ‘어리숙하다’는 비표준어라든지, ‘잠방이’가 표준어이고 ‘잠뱅이’는 비표준어라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 3. 입말의 표준어가 마련되어야

입말과 글말은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표준어 규정에는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접속 어미 ‘-구’는 입말에서 ‘-고’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국어사전에는 비표준어 어미로 되어 있다. ‘-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표준어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구’를 단순히 ‘-고’의 비표준어로 처리하는 것은 입말과 글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글에서 접속 어미로 ‘-구’를 쓰는 일은 없고 누구나 ‘-고’를 쓴다. 그러나 담소를 나누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는 ‘-고’를 쓰기보다는 ‘-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입말에서 ‘-고’만 쓰라고 강요할 수 없다.

대명사 ‘나’도 ‘너’의 경상도 방언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말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말을 할 때에도 글을 쓸 때처럼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글말과 입말의 차이나는 부분을 가려내어 입말을 할 때에는 입말답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그동안 표준어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결정된 사례가 많아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표준어는 새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어릴 적부터 무심코 써 온 말이 사전에는 비표준어로 처리된 예들도 적지 않다. 그런 사례들은 표준어를 친숙한 것이 아닌, 마치 외국어처럼 새로 배워야 하는 무엇으로 느끼게 하였다. 보통의 서울사람이라면 각자가 늘 쓰는 말이 표준어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두루 널리 쓰는 말이 무엇인



지에 대한 실증적인 통계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 사전 편찬자나 작가, 문필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표준어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의식 전환 또한 필요할 것이라 본다. 말이 문법적인 모든 문장의 집합이라면 한국어의 표준어 역시 현대 서울말 문장의 집합이어야 할 것이다. 현대 서울말의 전형적인 억양과 문법이 분명 있지만 그동안 이를 간과하고 주로 단어의 형태만을 문제삼아 왔다. 단어 중에서도 일부 단어들에 한정해서 다루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중에는 쓰이지 않는, 사어에 가까운 말들이 많았다. 또한 언어 현실과 다르게 표준어를 결정한 사례도 꽤 있었다.

표준어는 분명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표준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표준어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수가 쓰는 말이라도 비표준어가 될 수 있고 소수가 쓰는 말이라도 표준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태 조사 결과만으로 표준어를 정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을 되돌아보면 언중은 교육과 정책의 대상이었고 표준어를 정하는 주체가 따로 있었다. 즉, 국어학자들이 표준어를 사정(査定)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곧 표준어라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언중의 사용 실태와 학자들의 판단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가 문제이다. 언중의 사용 실태를 외면한 독단적인 표준어 사정도 있을 수 없겠지만 단지 언중의 사용 실태만으로 표준어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표준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너무 학자들에게만 맡겨져 왔다는 점, 앞으로는 언중의 사용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깊은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표준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민현식(1999) 표준어와 언어정책론(1), 남천 박갑수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  
집, 선청어문 27, 서울대 국어교육과.

이상규(2003) 공통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어로 어문규정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서.

이익섭(1983) 한국어 표준어의 제문제,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13, 국어연구소.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